



코람뉴스 (2021 년 10 월)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글 : 그린피스 환경단체)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우리는 수많은 ‘신종 바이러스’의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기후변화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 동물 서식지 파괴, 바이러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늘어나게 되면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가뭄, 수몰 지역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하게 되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뇌염의 신종 바이러스 니파(Nipah virus)는 1998~1999 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여 100 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병리 학회 간행물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니파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과일박쥐가 산불과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서식지에서 쫓겨나게 되자 먹이를 찾으러 양돈 농장에 드나들면서 돼지가 박쥐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이후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수의학 저널(Veterinary Science)에 따르면, 지난 80 년간 유행한 전염병들은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며, 약 70%가 야생동물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80 년대에 유행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원숭이 & 고릴라 같은 유인원으로 부터, 2004~2007 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새로부터, 2009 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돼지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SARS)와 최근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옮겨왔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단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기존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려 사람과 동물의 생활 환경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야생동물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사람들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영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산림 벌채가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주며 습도 등 기후 조건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전 세계에서 몰리는 관광객으로 더러워진 베네치아 운하가 전보다 맑고 깨끗해져 물고기와 오리같은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과 뎅기열 (dangue 열) 확산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이 인수공통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 세계 뎅기열이 창궐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40 억 명에 이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운 지역에서만 사는 모기의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바이러스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쿤구니아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아열대와 서반구로,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는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는 우간다에서 캐나다로 전파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의 2019 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기온 상승, 해수 온도 상승, 강우 패턴 변화, 습도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의 질병을

생각해보기

이러한 사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Before

After



전파하는 모기가 번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뎅기열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10 년 중 대부분은 2009~2019 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 도 상승하여 바이러스와 다른 병원체가 유발하는 전염병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공위생대학원 미생물학 및 면역학 전문가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병원체가 사람의 체온에 더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구를 지키는것이 우리의 건강도 지키는 것

랜싯은 오늘날의 아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존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보다 4 도나 더 높은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 식수 위협, 대기 오염 등과같은 문제에 시달릴 수 있으며, 극단적 기후, 태풍, 질병으로 생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정신적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뎅기열 (dangue 열)이란 :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볼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모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발열, 심한두통,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자연현상이 아닌 인류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류의 활동이 잠잠해지자 자연은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차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

9 월 23 일 날자로 CDC (연방정부 질병통제 센터) 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3 차 추가 백신은 승인을 하였습니다. 모더나와 존슨 & 존슨의 경우는 몇주 후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요.

백신 대상자로는 65 세이상과 면역력 질병이 있거나, 병원 관계자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상이며 2 차 접종을 하고 6 개월이 지나면 맞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므로, 해당한 분들은 담당의와 상담하시고 맞으시면 됩니다. 지난 4 월에 코람에서 맞으신 분들은 모더나로 맞았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와 연락하여 3 차 백신 스케줄을 잡을 예정입니다.

알림

♣ FLU 시즌이 되었어요. 올해에는 특히 잊지마시고 담당의와 상의하여 맞으세요. 더구나 코로나백신 3 차 접종 스케줄도 잡아야 하니, 어느 백신이든지 맞은 뒤 2 주는 지나야 다른 백신을 맞도록 계획하시기를 권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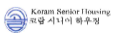
♣ 10 월 11 일은 콜럼버스 데이 공휴일입니다. 사무실도 휴일입니다...



♠♠♠♠♠ 10 월 생신을 축하합니다. ♠♠♠♠♠
주윤애님 (25 일, 509 호), 김송철님 (7 일, 408 호), 박병문님 (2 일, 310 호), 박데이비드님 (11 일, 510 호),

환영합니다..

413 호에는 이수잔님과 따님 이의선님이 새로 이사오셨습니다. 몇년전에 코람에 사신 분들이니 익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여겨요.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4444 N. Harding Ave, Chicago, IL 60625
Tel. 773-583-6616 Fax 773-583-7623
kham1@korchicago.org

**** 수리/고장 신청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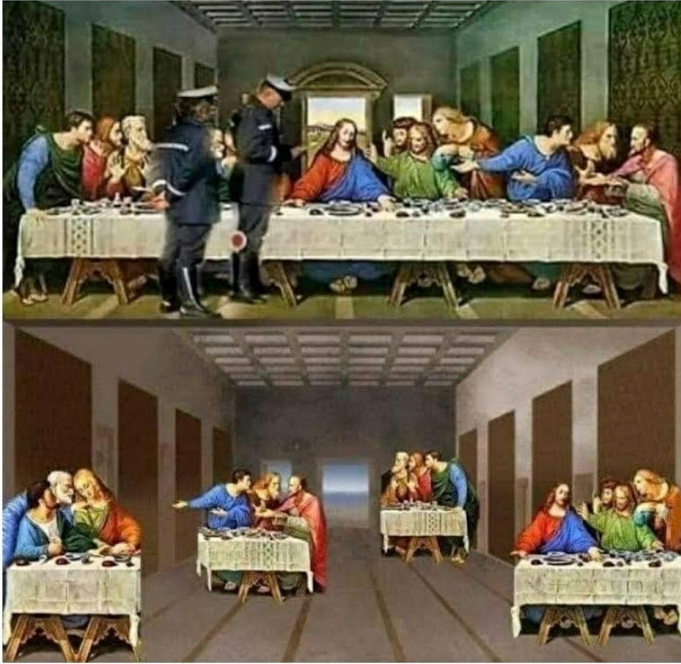
난짜 와 시간 :
신청자 이름 :
방번호 :
고장 및 수리, 기타 내용 :

본서 내용은 쓰리주, 네디커사무실 혹은 총사감행리니에게 제출하시고, 경비원님께 복사
3번까지의 문장 기호와 구호를 모두 읽고 제출하시요. 기문실책 없는 경우, 김주경이머스,
코디너이리, 경비원님에게도 제출해드 됩니다. 이 행령이 있는 것은, 이 서를 정정하시고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속에 수서시 감사합니다. 14

관리실에서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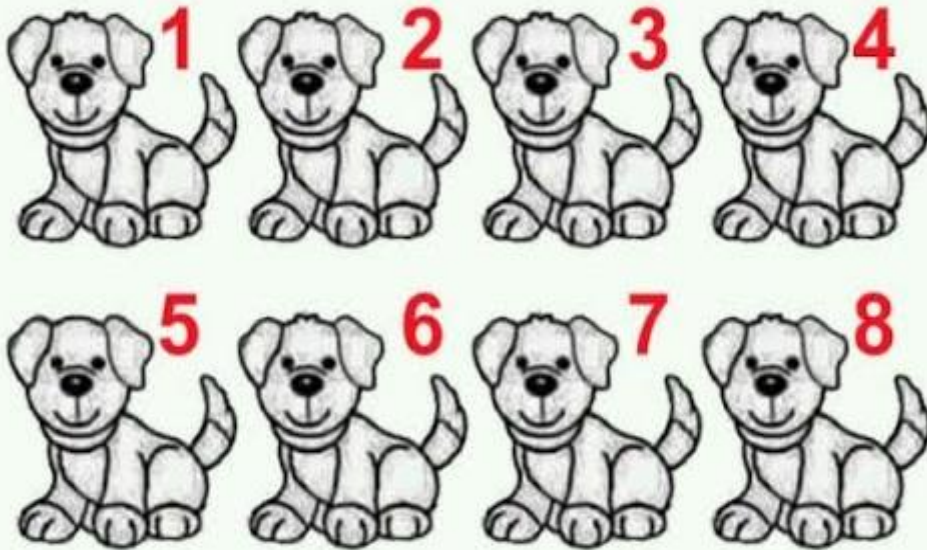
◆ 코람의 엔지니어 2 분이 새롭게 코람의 빌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월, 수, & 금요일은 정인호님이, 화, & 목요일은 이안호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각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매니저 사무실 문앞의 벽에 걸려있는 사물함에서 수리/고장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코람의 직원 누구에게나 전달하시면 됩니다.

최후의 만찬이 단속에 걸려서 .. 결국



나누어 앉게되었습니다

**8마리의 강아지 중에 다른 강아지 1마리를
찾아주세요**



춘향전 바로 알기 시리즈 6 : 정보제공 민산 김정교님 (코람 312 호)

춘향전은 다양한 예술 양식을 통해 현대적 면모를 계속하고 있는 선장하는 고전이다.

소설 :

춘향전의 기본적 내용은 같으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이 다른 이본이 120 여종인 판소리계 고전소설, 유진한의 (가사 춘향가 200 구) 1754 년, 연조 30 년 한시를 필두로 한문본 5 종, 이본 한글본이 100 여종, 신문학기 이해조의 (옥중화) 1912 년, 최남선의 (고본 춘향전), 1913 년, 현대소설로 개작된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 1925 년을 비롯해 38 책이 있다.

번역본으로 일본어 번역 (계림정화 춘향전) 1882 년, 사라카이 도이스, 프랑스 로스나의 (향기로운 봄) 1893 년,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베트남 (닌수영추영) 베트남식 발음으로, 중국은 윤색한 것 등 16 종이 있고 희곡도 있다.

창극 :

1902 년 원각사라는 국립극장이 생겨 소리꾼들이 배역을 분담하여 춘향가 판소리를 공연한게 창극의 시초다. 무대는 흰포장, 잘하는 소리를 분창하다가 1936 년부터 각본도 새로쓰고, 곡조도 불린 창작 "춘향전"을 공연하면서 장치와 소도구도 사용하였다. 1946 년 "대춘향전" 대한 국악원 창극부 김연수 주최. 1961 년 "대춘향전" 국립극장, "대춘향전"이라는 창극을 하는 그룹을 보면,

1. 각색 박광 지도 김연수
2. 각색 이원강, 창편곡 박동진
3. 연출 허규, 안무 채누선
4. 작곡 박범훈, 직창 안숙선, 예술감독 전황
5. 예술감독 안숙선, 총지휘 전황, 대본 김명곤, 총연출 이진탁

1935 년 "춘향전" 동양극장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여르 한성준, 오태석, 김연수, 박록주, 김소희, 박초월 당시 명창들, 2021 년 "춘향전-이몽룡을 기다리며" 국립민속 국악원

연극 :

1922 년 "춘향전" 16 막 춘강 백승희 (토월회), 1946 년 "춘향전" 작가, 연출, 단체불명의 공연, 1936 년 조선일보 연재, 38 년 공연한 "춘향전" 유치진작 전 4 막 8 장, 이해조의옥중화를 주대본하고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재창조한 작품. 현재도 "춘향전" 하면 이를 토대로 하여 공연하고 있다. 일어체로 된 장혁주 희곡 "춘향전"도 있다.

영화 & TV :

1923 년 일인 하야카와 마쓰지로 "춘향전" 무성영화, 스태프 전원 일인, 김신초 (개성기생), 김조성 (변사), 1935 년 "춘향전" 이명우감독 문예봉 (월북) 한일송 (월북) 노재신 (엄앵란 모), 이종철 (희극배우) 최초의 발성영화다. 미국 1927 년, 일본 1931 년 국내기술로 만들었다. 1955 년 "춘향전" 이규환감독 조미령, 이민, 노경희, 전택이, 이예춘 (이덕화 부) 1957 년 "대춘향전" 김향감독, 1958 년 "춘향전" 안중화 감독, 고유미, 최현, 전옥 (강효실 모), 1961 년 "대춘향전" 홍성기 감독



김지미 (22 살), 신규식 최초의 칼라 시네마스코프 1961 년 “성춘향” 신상옥 감독 최은희 (36 살) 김진규 허장강 (허준호 부) 도금봉, 구봉서, 양훈, 김희갑 (일본 수출) 최초의 칼라 시네마스코프. 1968 년 “춘향전” 김수용 감독 흥세미, 허장강 1971 년 이성구 감독 “춘향전” 문희, 신성일 70mm 영화, 입체 음향 한국 최초. 1976 년 “성춘향전” 박태환 감독 장미희 (공모), 이덕화, 장옥제, 최미나, 신구, 도금봉. 2000 년 “춘향년” 임권택 감독 97 번째 작품으로 칸 영화제 53 회 경쟁부문 진출. 1960 년 “탈선 춘향전” 이경춘 감독, 흘쭉이, 똥똥이, 막동이, 합주기, 후라이보이, 살살이. 1963 년 “한양에 온 성춘향” 이동훈 감독, 1972 년 “방자와 향단이”. 1994 년 “춘향전” KBS 추석특집 김희선, 이민우, 1999 년 2D 애니메이션 “성춘향년”. 2005 년 “쾌걸 춘향전”. KBS, 2007 년 “향단전” MBC, 2010 년 방자전 김대우. 1988 년 “춘향전” 올림픽 기념 정형일 연출, 김혜수, 손창민 KBS.

오페라 :

1949 년 “춘향전” 현재명 작곡 김생려 지휘. 1966 년 “춘향전” 장일남 작곡, 연출 김정옥, 대사 유치진, 지휘 정재동, 1986 년 박준상 작곡, 신창악 오페라 “춘향전” 김동진 작곡 1993 년, 뮤지컬 “대춘향전” 김희조 작곡, 이복에선 1948 년 가극 오페라 “춘향” 리면상 작곡 (이복 국가 작곡자). 1988 년 “춘향전” 평양예술단 명의의 집제작. 일본에서는 오페라 “춘향전” 1947 년 다카기도로구 작곡. 1990 년 민족가극 “춘향전” 이북

발레 :

프랑스 로스니 (Rosny) 가 번역한 “춘향전” <향기로운 봄>을 <사랑의 시련>으로 발레화. 현대 발레의 거장 미하일 포킨 안무 1936 년 현재도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지에서 공연되고 있다. 1986 년 “춘향의 사랑” 극본, 한지일 작곡 김성길 안무 연출 안성남, 무용극으로 1977 년 “춘향전” 김지일 극본, 김희조 작곡, 송범 안무, 이진순 연출.

행사 & 기타 :

남원 미스 춘향선발대회, 1931 년~현재. 전주대사습, 1961 년. 이북춘향전 (영화). 1980 년 “춘향전”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 1985 년 “사랑사랑 내사랑” ㅠ ㄱ ㅅ 양에서 신상옥 감독. 1992 년 일본만화 “신춘향전” (여러 자료를 참조했다.)